

 보 도 자 료 2013. 11. 26. (화)	행사문의	장 미 혜 연구위원 (02-3156-7133)
	언론담당	황 애 리 홍보담당 (02-3156-7296)
	배포일자	2013년 11월 26일 (화)
	※ 총 3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가정폭력 방지정책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에서 제시되어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폭력 없는 사회를 향하여: 이제는 가정폭력이다” 주제로 컨퍼런스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11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코리어나호텔 스테이트 쿼룸에서 “폭력 없는 사회를 향하여: 이제는 가정폭력이다”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우리사회가 없애야 할 4대악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가정폭력의 방지를 위한 주요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최금숙 원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정책과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정부부처, 국회, 경찰 및 사법기관, 여성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행사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 이번 컨퍼런스는 크게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 제1부는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의 진행으로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정책센터장이 “가족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의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정과 향후 개정방향”을 주제로,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가정폭력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 제2부에서는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강정민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장,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노성훈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함영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
-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가정폭력 방지 등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연구 사업을 5개년도에 걸쳐 수행중이다. 2013년에는 “여아 및 여성안전 관련 정책점검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붙임 1. 행사 개요

붙임 1 행사 개요

- 행사명 :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방안(V) 컨퍼런스
- 주제 : **폭력 없는 사회를 향하여: 이제는 가정폭력이다**
- 일시·장소 : 2013년 11월 26일(화) 13:00~17:30, 코리어나호텔 7층(스테이트 쿼룸)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프로그램>

시간	내용	
13:30~14:00	개회식	개회사: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축사: 윤명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14:00~15:30	제 I 부	사회: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 발표 1. 가족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의 이슈와 쟁점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정책센터장) 발표 2.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정과 향후 개정방향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3. 가정폭력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정책방향과 과제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30~15:40	휴식	
15:40~17:00	제 II 부	사회: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강정민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장)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노성훈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함영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7:00~17:30	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